



태풍이란?

- 태풍이란 적도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7m/sec 이상되는 폭풍을 말합니다.
- 명칭은 태풍(Typhoon : 한국 등), 사이클론(Cyclone : 인도양 등), 허리케인(Hurricane : 미국 등), 윌리윌리(WillyWilly : 호주 등) 발생장소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.

태풍은 왜 발생하는가?

- 태풍은 적도해상에서만 발생하는데, 중심부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높으며 공기의 상승운동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응결될 때 열이 발생하며, 중심부가 가열되면 공기의 상승운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,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운동에너지가 점차 커지고 지구자전에 의한 전향력과 원심력으로 거대한 회전운동을 하면서 속도와 세력이 더해져 발해합니다.

태풍의 위력은 얼마나 되나?

- 북대서양의 초대형 허리케인 1개의 위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만개의 위력에 해당하며 강우량은 우리나라 남한 인구 4천만명의 9~15년분의 생활용수와 맞먹는 300~580억 톤에 이릅니다.

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들...

- 1936. 8. 26 남해안 지방을 강타한 태풍은 1,232명, 1923. 8. 11 함경도 지방을 통과한 태풍은 1,157명의 인명피해를 주었으며
- 2002. 8. 31~9. 1 태풍 루사(RUSA)는 5조 1,480억원, 2003. 9. 12~9. 13 태풍 매미(MAEMI)는 4조 2,225억원, 1995. 8. 25 태풍 제니스(JANIS)는 4,563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.

태풍명칭	영향기간	사망(실종)	재산피해
사라(SARAH)	1959. 9. 15 ~ 9. 18	849명	2,043
베티(BETTY)	1972. 8. 18 ~ 8. 20	550명	1,846
준(JUNE)	1984. 9. 02 ~ 9. 03	189명	2,081
셀마(HELMA)	1987. 8. 31 ~ 9. 01	178명	4,962
루사(RUSA)	2002. 8. 31 ~ 9. 01	246명	51,480
매미(MAIMI)	2003. 9. 12 ~ 9. 13	131명	42,225

태풍이름 구성 및 사용방법

- 14개 회원국에서 각 10개씩 제출하여 총 140개의 태풍이름을 1개조에 28개씩 5개조로 구성하여 국가 명의 영문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 국가별로 1조에 2개씩 배치
- 동경 태풍센터에서 열대폭풍(TS) 이상의 열대저기압에 대한 명칭 부여한 후 회원국이 언론, 항공, 선박 등 국제사회를 위해 경보문을 발표할 경우 부여된 태풍이름 사용

태풍회원국 : 14개국

- 한국, 북한, 미국, 일본, 중국, 캄보디아, 홍콩, 라오스, 마카오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, 미크로네시아

태풍구분

- 태풍발생 : 적도전선의 스콜(Squall)이 북동무역풍대의 동풍에 의해 태풍으로 발전
- 태풍이름 : 일본 동경 "지역특별기상센터"(RSMC)에서 명명
- 태풍특징 : 태풍중심으로 바람이 약하고 구름 적음(지름 5 ~ 20km)
- 태풍강도

- 소형(C급) : 중심기압 980hpa이상, 최대풍속 17~30m/sec
- 중형(B급) : 중심기압 950-980hpa이하, 최대풍속 30~50m/sec이상
- 초대형(A급) : 중심기압 920hpa이하, 최대풍속 65m/sec이상